

금강경 읽기 · 사십구재 효림 스님, 동시출간



효림 스님

성남 불국사 주지 효림 스님(前 실천불교전국승가회 공동의장)이 <효림 스님과 함께 금강경 읽기>(책)와 <사십구재>(조계종출판사)를 동시에 출간했다.

<...금강경 읽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일상생활에서 느꼈던 부분들을 <금강경>에 비유하고 인용, 일반인들이 불교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한 책이다.

이 책에서 효림 스님은 “조계종의 소의경전인 <금강경>은 육조 혜능 스님의 무심(無心) 사상의 근원으로서 ‘무릇 있는 바 상(相)·고정관념이나 개념, 집착이란 다 허망함이나 만약 모든 상이 상이 아닌 줄을 보면 곧 여래를 보느니라’ 하는 것이 <금강경>의 핵심사상”이라며 “참된 인간상은 상이 없는 사람이다”고 지적했다.

효림 스님은 “사회를 갈등에 빠뜨리는 이념의 노예나 지나친 혁신주의자들, 광신적인 종교인들이 <금강경>을 많이 읽으면 사회가 건강해진다”면서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사람이나 잘 살려는 사람들에게 ‘불취어상 시명보살(不取於相 是名菩薩) 상을 취하지 않는 사람을 이롭게 보살이라 한다.’ 이라고 하는 <금강경>의 가르침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사십구재>는 종교를 뛰어넘어 유명인사들의 장례의식으로 정착되고 있는 불교의식인 49재의 유래와 의미, 의식, 절차 등을 강의형식으로 풀어쓴 글이다. 49재와 관련된 경전문구들과 관련한 금강경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낸 부록도 첨부했다.

김성우 기자

노용이 들려주는 “늙어도 날마다 새로운 날”

선도회 권영두 법사, ‘생활속의 참선...’ 펴내



“마음속에 내리는 존재를 떨쳐 버려서 확실히 비워버리고 사니 현실이 살만하고, 늙어도 날마다 새로운 날로 맞으니 오직 좋을 뿐이다. 그래서 나는 우리의 삶은 오직 ‘자작극’ 이라고도 말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재가참선단체인 선도성찰나눔실천회(前 선도회)의 법사인 법장 권영두(80) 용이 30여 년간의 참선 수행기를 진솔하게 기록한 <생활속의 참선수행 이야기>(운주사)를 펴냈다.

이 책에서 법장 거사는 “나는 참선수행을 익혀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었던 자신을 본래의 밝은 상태로 확실히 바꿔버렸더니 날마다 좋은 날이다”며 “현실을 극락세계와 같이 천당이라 여기며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다.

법장 거사는 “사람의 마음이 허공과 물과 같이 텅 비고 무심(無心)하면 어느 경우에도 밋거나 겁거나 싫거나 좋아할 것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생활속에서 수행하고 살면 생로병사의 법칙에 순응하면서 번뇌 망상에 걸리지 않고 제 구실을 다 하며 저절로 무심한 경지로 살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갑나무에 열린 홍시처럼 원숙한

인생 법문을 쏟아내는 일이 어디 하루아침에 이뤄진 일이겠는가. 강산이 여덟 번이나 변한 길은 연륜과 불혹(不惑)을 지난 46세의 늦은 나이에 만난 불연(佛緣)으로 삶의 달인이 된 것이다.

법장 거사가 참선을 시작한 것은 불교를 알고 나서도 8년 뒤인 54세, 이미 중년의 나이에, 그것도 사업상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만난다. 그리고 우리나라 재가한학선의 지도자였던 종달 이희의(1905-1990년) 노사로 부터 입실(入室: 1대 1 점집지도)을 받는다. 이후 ‘무(無)자 화두’를 시작으로 ‘<무관> > 48칙(則)’ 수행 과정을 마치고 이제 자신이 지도법사로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다.

<생활속의 참선...>은 이처럼 법장 거사가 참선에 입문한 계기부터 스승 이희의 노사와의 만남, 입실지도도를 받으며 화두를 타파해 가는 치열한 용맹정진, 선후배도 반들의 이야기를 실고 있다. 아울러 참선을 통해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어떻게 본래면목(本來面目)을 찾고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되어 자유인으로서 행

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는지 밝히고 있다. 투박하면서도 진실된 글은 독자들을 참선의 세계로 이끄는 데 충분한 설득력을 준다.

법장 거사는 이 책을 인연 닿는대로 전국 대학가에 무료로 보시한다는 원력도 실천하고 갖고 있다. 참선 수행은 젊어서 시작하면 할수록 좋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본인이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다.

선도성찰나눔실천회 선원 건립을 위해 살고 있는 집까지 아낌 없이 기증한 노 거사의 자비 행은 참된 무소유(無所有)와 무념행(無念行)이 어떤 것인가를 몸소 보여주고 있다.

생활속의 참선수행 이야기 | 권영두 지음 | 운주사 | 1만원
김성우 기자



권영두 법사

‘영산재의 문화콘텐츠 만들기’ 김영렬 감독, 출판기념회

불교 전통의식인 영산재가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가운데, 한국코메디언협회(회장 엄용수)가 김영렬 감독의 <영산재의 문화콘텐츠 만들기>(운주사)를 출판기념회를 연다. 행사에서는 간단한 영산재 및 코메디언들의 축하공연도 마련된다.

지난 10여년 동안 수많은 국내외 공연을 통해 영산재를 세계 문화계에 알리는 김영렬 감독(중국대 문화예술대 외래교수)은 영산재를 문화콘텐츠로 개발해 현대화, 세계화 하는 작업을 지속해 왔다.

최근 발간된 <영산재의 문화콘텐츠 만들기>는 김 감독이 오랫동안 방송 현장에서 KBS PD로 몸담으면서 체득한 현대적 연출기법을 토대로 영산재의 형상화, 무대화, 연희화를 통한 대중화를 모색한 책이다. (02)784-3400
김성우 기자

본지 연재 ‘조선왕릉...’

올해의 청소년도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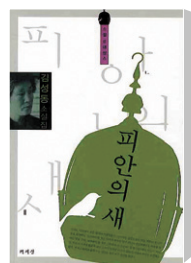
본지에 2년 동안 인기리에 연재됐던 <조선왕릉, 잠들지 못하는 역사 1, 2>(이우상 저, 다함미디어)가 올해의 청소년 도서’에 선정됐다.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이 주관하는 ‘2009 올해의 청소년 도서’ 사업 가을분기 추천에서 선정된 총 30종의 도서 중 불교관련 도서는 불광출판사의 <지리산 스님들의 못 말리는 수행 이야기>(천진, 현현 지음)와 함께 두 권이 선정됐다.
김성우 기자

구도 향한 고뇌 포착 김성동 문학의 원형 김재일 사찰생태연구소 대표 ‘산사의 숲...’

‘피안의 새 복간’... ‘간추려 본 발자취’ 추가

본지 인기연재 ‘108사찰 생태기행’ 네 번째 시리즈



우리 문단 대표 작가들의 첫 작품집 복간 시리즈인 도서출판 책세상 ‘소설 르네상스’의 스물여섯 번째 권으로 김성동 작가의 <피안의 새>가 출간됐다.

복간된 <피안의 새>에는 초판에 실린 열 편의 단편소설 중 ‘나의 이야기’를 제외하고, 새로 집필한 ‘간추려 본 발자취’를 작품들 뒤에 수록했다. 작가는 자신의 이력과 작품의 원천을 밝힌 ‘간추려 본 발자취’라는 고백수기에서 이데올로기의 상처로 얼룩진 어린 시절과 깨달음을 향한 젊은 날의 방황이 그의 문학적 원천이었음을 보여준다. 작가는 출가 수행 경험을 토대로 인간의 본질 문제를 다루며, 섬세하고 유장한 필치로 한국전쟁이 남긴 아픔과 구도의 여정에서 존재의 근원을 탐구한다.

소설적 허구와 자전적 경험의 팽팽한 긴장 사이에 위치한 김성동 문학의 특성이 드러나는 <피안의 새>는 그의 히트작인 소설 <만다라> 이후 벌어진 사건들의 연속 같은 느낌을 준다. <만다라>의 ‘구도적 방랑’이라는 그의 문학적 화두가 <피안의 새>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김성동 평론가는 작품 해설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피안의 새>는 <만다라>에서 화두로 등장하는 호리병 속의 새이다. 호리병에 갇힌 새는 ‘피안에 놓인 새’가 아니라 ‘피안으로 날아오르고 싶은 새’로서, 결핍과 고통이 가득한 현실 세계에서 깨달음과 중생 제도의 꿈을 가슴에 품고 끊임없이 방황하는 젊은 시절 작가의 자화상을 암시한다.”

<피안의 새>를 통해 구도를 향한 고뇌와 번민이 현실과 동떨어져 추상적인 관념으로만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삶의 모순을 깨닫고 보편적인 삶의 진실로 다가가는 김성동 문학의 본질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김성우 기자



무려 7년간 ‘108 사찰 생태기행’이란 코너를 본지에 연재한 김재일 사찰생태연구소 대표의 ‘108 사찰 생태기행’ 시리즈의 네 번째 책 <산사의 숲, 바람에 물들다>(지성사)가 출간됐다.

<산사의 숲...>은 흥천 공작산 수타사, 동해 두타산 삼화사, 부여 부소산 고린사, 논산 반야산 관촉사, 제천 월악산 덕주사, 문경 회양산 봉암사, 안동 천등산 봉정사, 상주 노악산 남장사, 양산 영축산 통도사, 나주 덕유산 불회사, 해남 달마산 미황사의 가을풍광을 담았다.

이번 <산사의 숲...>에서는 특히 화려한 색상의 변화로 가을의 대표적 자연 풍광으로 여겨지는 단풍나무의 붉은 단풍이 알고 보면 치열한 종족 보전을 위한 노력의 일환임을 알려 준다. 단풍이 물드는 현상은 자신의 영역 주변에 다른 종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을 준비하는 일종의 타감 활동의 하나라고 한다. 단풍잎의 한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다른 종들에게는 독성으로 작용하여 단풍잎이 떨어진 자리에 다른 수종들이 생장할 수 없어 이듬해 봄이 되면 그 주변에는 단풍나무 묘목만 자라게 된다는 것. 아름답게만 보는 자연현상이 자연 속 그들에게는 치열한 생존임을 실감하게 하는 대목이다.

더불어 저자는 자연 속 동식물들끼리의 경쟁 외에 우리 인간의 개입으로 인한 변화도 경계하고 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편리를 위해 물길을 바꾸거나 지형에 변화를 주는 것에 주목한다. 물길 바뀌면 지형과 식생이 바뀌고, 이로 인해 곤충과 조류상도 변화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연이 보존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사의 숲...>은 숲속 생태뿐만 아니라, 또 다른 숲으로 존재하는 사찰의 문화유산까지 생태적 시각으로 기록하고 있어, 절과 숲에 처음 눈 뜨는 이들에게 좋은 지침이 될 것이다.

산사의 숲, 바람에 물들다 | 김재일 지음 | 지성사 | 1만7000원
김성우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사는 즐거움	보경	플
2	날마다 웃는 집	법륜	김영사
3	그냥 무조각이야	대행	한미음산원
4	이름디온 나무리	법정	문학의 숲
5	일가일회	법정	문학의 숲
6	시간과 스님, 삶을 말하다	도빈 김용택	메디치미디어
7	행복을 좇아가지 마라	김상백	운주사
8	인파경	현담	선
9	행복을 창조하는 기도	해담	불광출판사
10	연재가 이 세상에 없을 당산을 사랑합니다	월호	미음의 숲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선문염속 14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선문염속 전 30권중 14권 출간! 최초로 본공안을 한 척도 빠짐없이 펴내고, 송하여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전강 대선사 법어집 달다
원문을 새길 수 있도록 직역한 초발심자경문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정맥선원 선거귀법 법문 02-3494-0122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정맥선원 영원현실 / 선문염속 031-531-8805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정맥선원 영원현실 / 선문염속 062-944-4088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정맥선원 반야심경 법문 051-503-6460

02-3494-2460 www.zenparadise.com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원인동 요가마음

민속죽염 21년전통
조상의 열매 온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요약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함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5,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양비 2500원 (연말이성 구매시 무료배송)

※ 3만원 이상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바로 그달마도
신비한 영험이 깃든 지명스님 달마도

“영험한 기운이 충만한 지명스님 달마도와 함께 삶의 리망을 키워보십시오”

지명스님
지장보살 가피입은 신비의 달마도와 특별한 인연으로 지명스님은 오늘도 수도 정진하는 가운데 청정하고 정갈한 공간에서 달마도를 원력삼아 고단한 우리에게 삶에 광명의 빛으로 다가오고 계시다.

인연있는 자만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신비한 지명스님 달마도를 당신 곁에 두시어 소망하시는 바를 꼭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지명스님과 함께 상담을...
불교를 알고자 하시는 분이나 이유없이 고통스러운 분, 사업, 취업, 진학, 질병, 패배, 애정, 주변갈등등 남모르게 고민하는 인간사의 모든 장애를 친절하게 상담해 시원하게 풀어 드립니다. (약자달마, 병통달마)

각자의 근기따라 108가지의 다양한 달마도가 있으니 각기 자기와 맞는 달마도를 스님과 상담 후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02)2663-6655 010-4616-3335
서울시 강서구 방화 2동 달마사 지명 함장

**나한님의 영험이불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목조, PC고건축, 사찰문, 나한님
한국고건축
문양재수리기능보유등록 제 1853호

금호 임영창 함장

8치, 1차, 1차 2치, 크기로 조정합니다.
16 나한님 목조각, 채색조성
500 나한님 목조각, 채색조성
1,250 나한님 목조각, 채색조성

2009년 현재나한 11,532분채 풍부한 경험, 실적으로 조성불사중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올리는 예불문에 나오는 “일천이백오십분의 나한님은 부처님의 최초제자인 다섯비구, 가섭삼행체의 제자였던 천명의 비구들(우루민나기섭의 오백제자, 나제가섭의 이백오십제자, 가아가섭의 이백오십제자, 그리고 사리불과 목련을 따르던 이백오십명)을 말합니다.”

◆ 1,250 나한도 1권 판매금액 180,000원
◆ 입금계좌 : 농협 174392-56-064352 (예금주:이애경)

불 사의 상담문의 041)567-2600 / 011-421-5337
인터넷 주소창에 “고건축” 검색어 삽입
www.ehanok.com